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10월 2일(수)
한글교육 세미나 2

10월 5일(토)
하반기 교사대학 개강

10월 16일(수)
한우리 수요베이직 시작

10월 27일(주일)
성찬주일

대 예수교장로회
양주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에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안현수 2부/이요한 3부/이성민 4부/김성진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다 함 께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봉헌 및 1부/ 조나영 권사 2부/ 민봉식 장로 3부/ 이강용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욘 1:1-4 사 회 자
- 찬 양 2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시온찬양대
3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성민 목사

- 찬 양 주님 말씀하시면 다 함 께
주기도문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김 의 진
대표기도
- 찬 양 여정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씬 고후 6:14-7:1 [역설의 복음 6] 김진영 목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조종면 장로 2부/ 최화식 권사 3부/ 김승기 장로 4부/ 김준천

수요일예배

저녁 7시

차세대 신앙교육
시리즈 7

말씀: 그랫구나
 제목: 왕상 3:4-15
 기도: 형재홍 집사 (다음 주 기도: 손영락 집사)
 설교: 안현수 목사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 2부예배 시작 전에 꿈의 나라
학생들이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복음책을
나눠드립니다.
3. 4부예배 가브리엘 찬양대 반주자 모집
 - 연습시간: 주일 12-2pm
 - 다음 주부터 바로 반주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섬길수 있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형지원 021 0294 5113
4. 2025년 경배와 찬양으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1부: 싱어/ 건반, 2부: 싱어
3부: 드럼/ 건반/ 일렉 기타
 - 문의: 김규영 집사 022 029 9838
카톡아이디 : DavidQkim
5. 교역자 동정: 남우택 담임목사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우리교회
말씀 사경회 및 재미교신 총회 참가차
출타합니다. 10.3 - 10.25

제32기 알파코스 섬김이 모임

■ 섬김이 모임: 10월 15일 - 11월 5일(4주)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이 있을까?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와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길 원하시는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 문의: 이종길집사 021 194 8008

수요예배 - 차세대 신앙교육 시리즈(10주)

날짜	주 제
10.09	소통 (왕상 3:4-15)
10.16	정체성
10.23	사랑과 훈육
10.30	교회 공동체

교육부서 및 교육위원회

- 기쁨의 나라 성경학교
 - 10월 5일(토): 9시 30분 - 3시 비전홀
 - 10월 6일(주일): 10시 - 11시 30분
- 비전 주니어 아웃리치: 10.5(토) - 6(주일)
타우랑가, 해밀턴
- 비전 시니어 홀리데이즈: 10.5(토) - 7(월)
- 비전 시니어 아웃리치: 10.10(목) - 12(토)
해밀턴, 로토루아
- 청년알파 성령수양회: 10.4(금) - 10.6(주일)
왕가화이해드, 크리스찬 캠프

Term 4 사역 개강 안내

- 문화센터: 10월 14일(월) 오전10시
- 새싹학교: 10월 14일(월) 오후4시
- 평생교육원: 10월 15일(화) 오전10:30
- 엄마랑아가랑: 10월 16일(수) 오전10:30

한우리 수요베이직

10월 16일, 23일, 30일 & 11월 13일

7시	수요예배		
7:45	기도 베이직 (교회카페)	찬양 베이직 (비전홀)	전도 베이직 (조이홀)
	이요한목사	이성민목사	안현수목사
8:15	5, 청년부	1, 2교구	3, 4교구
	*교구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부

- 전교인 거리전도: 오후 3시 타카푸나
스타벅스 커피숍 건너편에서 있습니다.

월	일	목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10	6	느헤미야 / 선한 사마리아인
	13	야베스 / 바울로마 / 주일 여자제자반
	20	스칸디나비아동행 / 바나바

교우동정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 내가 나아가-리다 - 주님
 뜻이아-니면 - 내가 멈춰서-리다 - 나의
 가고서-는것 - 주님 뜻에있-으니 - 오주
 -님 - 나를이끄-소-서- 주님 뜻아
 신 그-곳에 - 나있 기원합-니-다 - 이끄
 시는-대로 - 순종 아며살-리-니 - 연약
 안 내-영은 - 통마 여일아-소-서- 주님
 나 라와 - 그 뜻을위-아여 - 뜻아
 오-주 -님 - 나를이끄-소-서-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 데 오	1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21575899	온 유	39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40 인도네시아	채계섭	21424199	
	3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41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42 도우라안다옥	황용선	21399603	
	5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3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6 드레스덴	여승재	0211030655		44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소망	7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무 지 개	45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46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9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7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10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8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1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임 마 누 엘	49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사랑	12 아베스	김영주	21919163		50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3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51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4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52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15 바나바	김종국	21654688		53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6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4 양익문	조종면	275325423	
다윗	17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55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8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6 오클랜드	장태용	224695511	
	19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7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20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8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21 칠레파타고니아	김호준	221996630	약 속	59 일본	손동욱	212043531	
빛	22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60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61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가나	이광일	212179303		62 LA	정두련	211365151	
	25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21556934		63 서울	김태성	211499624	
	26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64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27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5 산토	조기동	2102370987	
	우리	28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믿 음	66 네팔 은혜	구재운
29 엘림		이명준	272970117		67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과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8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1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9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2 월드 모로코		윤수정	272008546	70 아버가일	안경욱		2102913234	
33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71 오병이어	최병한		212136995	
참 빛	34 벨엘	신규식	21417756	성 결	72 웰링턴	이중훈	21781999	
	35 모스크	노희영	274308322		73 에벤에셀 MercyShip	이민수	21810072	
	36 섬나 호치민	나중엽	21386202		74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37 잇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5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38 통가	송정순	2102562581		76 예루살렘	박경남	274325524	
교 구	초 원	교역자	3 교구	우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사랑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욘 1:1-4)

1. 이번주 설교 가운데 가장 도전받은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어 보자.
2.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나누어 보자.
3.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에 대해 목장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정리하고 기도하자.

<p>네팔</p>	<p>“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네팔서 홍수·산사태로 사흘간 사망자 100명 넘어</p>
<p>네팔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사흘간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9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27일부터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는 하루 최대 322.2mm의 폭우가 쏟아져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바그마티강과 지류가 넘치면서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고, 주택이 떠내려갔으며, 도로와 다리가 마비됐다. 산사태로 주요 고속도로가 차단되고, 국내선 항공편도 중단됐다.</p> <p>현재까지 카트만두에서 37명이 사망하고, 전국적으로 사망자는 104명에 이르며 64명이 실종 상태며, 3,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조됐다. 네팔 당국은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고속도로의 야간 운행을 금지했으며, 전국의 학교와 대학교를 3일간 폐쇄했다. 구조대원들은 헬기와 보트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가 홍수와 산사태의 빈도와 심각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p>	
<p>뉴질랜드</p>	<p>“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뉴질랜드 성인 20명 중 1명이 LGBTIQ+로 확인돼</p>
<p>최근 공개된 2023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성인 20명 중 1명이 LGBTIQ+ 또는 레인보우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StatsNZ)에 따르면, LGBTIQ+ 또는 레인보우 커뮤니티의 인구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간성, 기타 '소수 성별 또는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포함된다.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23년 기준 해당 인구는 172,383명으로, 성인 인구의 4.9%에 해당한다.</p> <p>레인보우 커뮤니티 소속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웰링턴으로 11.3%를 기록했다.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인구: 2023년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15세 이상 인구 중 144,960명이 이성애자 이외의 성 정체성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반수인 54%가 양성애자로, 30%가 동성애자로 자신을 규정했으며, 나머지 13%는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원처치).</p>	
<p style="text-align: center;">기 도 문</p> <p>사랑하는 하나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팔] 심각한 자연재해로 환난 가운데 있는 네팔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 [뉴질랜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뉴질랜드를 불쌍히 여기사, 바른 가치관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우리가 예배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독교의 가치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p>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p>	

